

# 전북자치도, 산불 예방·대응 총력

### ‘전북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내달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산불진화 헬기·감시원 배치·초동진화 태세 확립·산불 예방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14개 시군, 산림청, 소방본부, 군항공대, 전북경찰청, 전주기상지청 등 48개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14개 시군, 산림청, 소방본부, 군항공대, 전북경찰청, 전주기상지청 등 48개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별 산불방지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산불 예방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협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도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공유했다.

전북자치도는 3월부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은 청명·한식·식목일 등으로 인해 산불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산불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초동진화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도,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 10개 시군에 총 31회·9300여명에게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양·한방·치과·안과 진료·물리치료 등... 실질적 의료 지원 강화

전북자치도가 농촌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13일부터 도내 10개 시군 대상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0억5,000만 원을 투입해 총 31회 운영하여 약 9,300여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개소당 사업지원 단가도 기존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고, 전북자치도 공공의료기관 및 협약 병원과 협력해 시군별로 평균

3회 이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왕진버스 사업에 건강운동관리사를 신규 투입해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신체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의 진료 중심 지원을 넘어 예방과 건강증진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넘치는 농촌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교통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실질적으로 의료 지원 할 수 있도록 왕진버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 농촌 고령화 문제 해결,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 구급대원 폭행사범에게 징역형 선고... 전북소방,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가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후,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한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소방활동을 방해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이 선고됐으며,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차례로 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돼 총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이 선고됐다.

B씨는 도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으며, 법원에서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취자의 범행에 대해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또한 엄정히 처벌된다.

현재 전북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로는 구급대원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위험요인 발생 시 펌블런스 동시 출동과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후 대응으로는 바다편을 활용한 증거 확보와 소방 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직접 수사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 전북자치도, 정신응급 대응 강화한다

### 정신응급병상 5개로 확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 지원과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정신응급병상을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병상 확충을 기념해 13일 신세계병원에서 ‘정신응급병상 확보 현판식’을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도내 정신응급환자의 치료 공백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4개 병상(원광대학교병원 권역정신응급료센터 2개, 신세계병원 1개, 마음사랑병원 1개)에 더해 미래병원에 1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며,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2025년 하반기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마음사랑병원, 신세계병원, 미래병원이 선정됐으며,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정신응급료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24시간 관촬병상을 운영해 신체 질환을 동반한 정신위기 대상자의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정신응급병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여 24시간 치료 및 관찰이 가능하며, 야간과 공휴일에도 운영돼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정신응급병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여 24시간 치료 및 관찰이 가능하며, 야간과 공휴일에도 운영돼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 도, 수시 인사 단행... 총 51명

### 국장급 승진에 조영식 체육정책과장

전북특별자치도가 13일 국장급 1명과 과장급 3명 등 총 51명에 대한 수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조영식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인사를 통해 조영식 체육정책과장이 국장급(3급)으로 승진했다.

조 과장은 지난 2020년부터 자연생태과장, 생활환경과장, 안주 부군수 등을 역임했다.

또 농생명정책과 김정중 협치농정팀장과 체육정책과 엄현미 체육정책팀장, 고령친화정책과 이영란 고령친화정책팀장은 과장급(4급) 승진자로 내정됐다.

이번 수시인사는 파견, 휴직 등에 따라 국장 및 과장급 등이 발생하면서 이뤄졌다.

# 도, 웰니스·의료관광 평가 ‘최고 등급’

### 문체부 공모사업 평가 1위... 국비 5억 확보로 관광산업 탄력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웰니스·의료관광 공모사업’ 평가에서 웰니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며, 전북형 웰니스 관광 육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완주 아원고택

이번 평가는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 추진 성과와 현장 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북은 강원, 충북과의 경쟁에서 웰니스 부문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웰니스·의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기반을 강화해왔다.

특히 전북은 전통문화와 미식을 접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2023년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해부터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전북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 한옥, 한방 치유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만들어냈다. 도는 올해도 이번 가 결과를 바탕으로 웰니스 관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공 고 -

##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총회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총회를 알리고자 합니다.

#일시 : 2025년 3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 티하우스레몬(서울 강남터미널 2층) / 중식(시래마을)

- 안 건 -

- 결산 보고 ● 감사 보고
- 부동산매도건 ● 종중규약변경건
- 기타 안건

밀양박씨 이정공파 종중 회장 박철진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